

“하나됨, 율법이 못한 것을 은혜는 가능하게 한다!”

사도신경 다함께

찬 송 286장 다함께

- 1.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
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
- 2.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
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
- 3.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
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
- 4.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
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

[후렴]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
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

기 도 맡은이

성경봉독 요한복음 17:20~23 다함께

²⁰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
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²¹아버지여,
아버지께서 내 안에,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
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
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²²내게 주신 영광을
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
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²³곧 내가 그들 안에
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
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
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
하려 함이로소이다

I 삶 나누기

한 주간의 삶과 Q.T,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.

“하나됨, 율법이 못한 것을 은혜는 가능하게 한다!”

2026. 1. 5. 신년비전새벽기도회 설교

“하나 되라”는 말이 부담이 될 때

사람마다 “하나됨”이라는 말을 들을 때의 느낌이 다릅니다. 어떤 이들은 “그래,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” 하고 마음을 다잡지만, 상당수는 ‘이건 나와 먼 이야기 같다, ‘또 참으라는 얘기 같다’ 는 부담을 느낍니다. 왜 그럴까요?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 있지만, 그 몸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. 억울한 마음, 섭섭한 마음을 간직한 채 “주님 때문에” 참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“하나 되라” 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“또 한 번 손해 보라” 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.

※ 우리 현실 속의 상처 때문에, “하나됨” 이 때로는 복음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립니다.

“예수님의 기도, 대상은 ‘제자들’과 ‘우리’이다”

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반복해서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. “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” (21절), “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” (22절), “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” (23절) 그리고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“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” 곧 그때 눈앞에 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,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. 2천 년 전에 예수님은 “아버지여, 앞으로 이 복음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,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” 라고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.

※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 안에는 오늘의 나와 우리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“ 하나됨은 ‘노력의 조건’이 아니라 ‘은혜의 열매’ ”

특히 2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. 말씀의 구조를 보면, “우리 안에 있게 하사 → 하나가 되게 하소서” 라는 흐름입니다. 곧 하나 됨은 우리 노력의 조건이 아니라,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. 요한 복음은 언제나 관계(안에 거함)가 먼저 행위(사랑·순종·하나됨)는 그 열매로 따라옵니다.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고 성취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,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저절로 맺게 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. 주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은 갈라지고 도망칠지라도 성령으로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될 것을 아셨기에, 이미 그 변화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.

※ 하나됨은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, 이미 주어진 은혜가 만들어내는 선물입니다.

“율법은 나누고, 은혜는 하나 되게 한다”

왜 어떤 공동체에서는 “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” 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지 않고 머리에서만 맴돌며 공허하게 들릴까요?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율법적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. 율법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정죄하게 됩니다. 내가 쌓아온 기준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, 혹시 내 삶이 부정당할까 불안함을 떨치지 못합니다. 그러나 은혜가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며,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.(요일 4:18)

“내 인생은 사람에게 부정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.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을 세우실 수도 있고 지우실 수도 있다” 는 믿음이 생깁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내적으로 자유 한 사람이 됩니다.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니,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마음이 넓어지고 포용과 관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. 아브람도 애굽에서 은혜를 경험한 후(창12장), “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지 말자”(창 13:8)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내어주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나는 은혜 안에서 안전하다” 는 확신이 자리 잡은 사람만이 이웃을 향해 더 너그럽게, 더 온유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.

※ 하나님의 은혜 → 안전함 → 자유 → 하나됨의 순서입니다.

결론

결국 성도의 하나됨은 우리 노력이나 성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드리신 기도,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를 때 시작됩니다. 우리는 먼저 하나되기 위해 애쓰는 대신,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. 그 사랑이 우리 안의 두려움을 내어 쫓고, 잃어버린 안전함을 되돌려 주며, 형제를 품을 자유를 회복시킵니다.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, 은혜가 흘러드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복음의 열매입니다.

이번 한 달, “하나되기 위해 노력해야지”가 아니라 “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야지”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, 우리 안에서 잃어버렸던 가족의식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.

말씀 나눔

- ① 예수님의 기도 안에 ‘나’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위로와 도전이 됩니까? “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” (20절)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.
- ② 나는 교회 사람들을 볼 때, 율법의 잣대(비교·판단·정죄)에 더 영향을 받나요, 아니면 은혜의 시선(이해·용납·기다림)에 더 영향을 받나요? 최근 마음에 남는 상황을 한 가지 떠올려 이야기해 봅시다.
- ③ “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전하다”는 확신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? 혹시 여전히 사람의 인정, 평가, 시선 때문에 흔들리는 영역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.
- ④ 오늘 공과를 통해 받은 은혜나 위로,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.
특별히 이번 한 달, 하나 됨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, 은혜 안에 머무는 한 가지 실천을 서로 나누고, 그 실천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.